

Satir 성장모델에 근거한 일치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고 문 정* 김 봉 환

숙명여자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Satir 성장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 일치성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수행에 앞서 Lee(2002a)의 일치성척도를 번역과 역번역 및 수정을 거쳐 타당화를 시도하였으나 Satir 성장 모델을 검증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도구로 드러났다. 이에 문항개발과 예비연구를 거쳐 본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일치성척도의 구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하여, 문항을 개발·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Pilot 연구에서 성인남녀 189명, 예비연구에서 330명, 본 연구에서 659명이었다. 예비연구 결과를 근거로 문항분석, 요인분석 등의 양적 자료와 문항 내용간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0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들로 구성된 본 검사를 타검사들과 타당화하였고, 교차집단으로 상담자 263명을 포함하였다.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 검증결과, 개발된 일치성척도는 대인간차원, 심리내적차원, 영성차원으로 구성되어, Satir 성장모델을 지지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Satir, 일치성, 대인간차원, 심리내적차원, 영성차원

* 본 연구는 고문정(2009)의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Satir 일치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수정 한 것임.

† 교신저자 : 고문정, 숙명여자대학교 성평등상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140-742)
Tel : 02-710-9938, E-mail : kmj@sm.ac.kr

한국의 가족체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서구화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 자체보다 관계 속에서의 개인을 더 중시하고 개인 상담을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부부나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근래에 한국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치료기법은 Satir 경험주의 가족치료다. 초기의 Satir 경험주의 가족치료는 실증주의 과학에 뿌리를 둔 표준화된 서양 의학 모델에 의해 적절히 이해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람들 간의 사랑과 영적인 연결을 창조하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었다(Schwartz, R., in Walsh, F., 1999; Bentheim, 2008, p.38). 하지만 최근 상담 동향에서는 심리치료에 있어서 상담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Satir가 일치성의 세 번째 수준으로 중시한 영성(우주적-영성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여러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상담자들의 공동적 관심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1994년 미국정신의학 협회(APA)는 정신 장애의 진단과 통계 매뉴얼(DSM-IV, V code 62.89)에서, “예를 들면 신앙을 잃거나 의문시하는 참담한 경험이나, 조직화된 교회나 종교적 협회와 반드시 관계가 있지 않을 수 있는 영성적 가치에 대한 의문점을 포함한다.”라고 처음으로 영성적 쟁점에 대해 승인하였다(Bentheim, 2008, p.43).

국내·외에서 Satir 성장모델이 상담의 빠른 효과성으로 인해 폭넓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론적인 체계나 연구방법론과 관련해서 연구물이 많지 않다. 일치성의 세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이론서인 「사티어 모델-가족치

료의 지평을 넘어서」가 Satir 사후인 1991년 출판되었고, 2006년 처음으로 Satir 관련 연구물에 대한 총체적인 학회지가 만들어졌다(Banmen, 2006). 해당 이론의 활성화를 위해 측정도구는 필수적이다(김계현, 2002). 하지만 Satir 성장모델 관련연구는 대부분 프로그램 효과나 상담에서의 내담자 변화와 관련된 연구물들이고, 방법론적인 연구물이 거의 없다.

Satir에 대한 국내에서의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법이나 타 기법과의 비교에서 그치고 있고, 기본이 되는 Satir 경험주의 가족치료 자체에 대한 측정도구와 관련된 방법론적 연구물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제까지의 국내연구는 방법론적 연구보다, 사례연구(김미영, 1988)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영란, 2007; 박은초, 2005; 김희수, 2003; 김수연, 2001; 윤종옥, 2001)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는 다른 이론과의 비교연구(최영실, 2005; 전병수, 2000)가 있었다. 국외의 Satir 모델 연구에서는 치료적 개입이나 과정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내적 과정, 가족재구성, 가족조각 등의 치료 기법과 관련된 연구(Beaudry, 2002; Taylor, 2002), 특정 대상에 대한 Satir 성장 모델에 대한 적용에 관한 연구들(Morrison & Ferris, 2002; Lum, et. al. 2002; Banmen, 2008; Pei, 2008)과 내적 변형(transformational)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다(Sayles, 2002; Smith, 2002, McDonlad, 2008). 또한 영성과 관련된 연구(Tam, 2006)와 부부 영성 관련 연구(Bentheim, 2006, 2008)가 있다. 치료적 도구로서 일치성이 Satir 모델에서 잘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국외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임상적 문헌이나 방법론적 연구는 거의 없다.

Satir의 체계적 성장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

면, 두 개의 주요한 철학적 사고가 Satir 모델을 지지한다. 하나는 강한 실존적 치료의 취향인 “경험적/인간적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가족체계의 관점이다(Banmen, 2002). Satir 성장모델은 경험적 가족치료로서 인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 심리치료처럼 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현상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 경험의 질적인 측면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곧 치료적 개입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을 가족 맥락의 틀 내에서 그리고 그 가족 내에서 가장 잘 이해되는 가족 체계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Corey, 2001), 지목된 가족 구성원 개인의 병리적 증상이 아닌 가족 기능상의 증상에 치료의 초점을 맞추었다. Satir는 인본주의와 가족체계라는 두 영역을 결합하였으며, 치료목표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의 감수성 향상과 자각에 대한 확장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대인간 변화이다(정문자, 2003).

Satir(1983)는 어떤 가족치료 이론가들보다도 인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인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성화 시키면, 과거에 형성된 역기능적인 대처방법은 새로운 대처방식을 학습하여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변화가능하다고 믿었다. 최근의 Satir 모델은 깊고 빠른 치료효과와 인간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내지 변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Banmen, 2002), 개인치료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김영애, 김정택, 심혜숙, 정석환, 제석봉 공역, 2004).

Satir 성장모델의 핵심은 일치성으로, 다면적이며, 수준이 다양하며, 역동적이고 기능적이다. 일치적이란 개인이 자기(self)와 만나 감정, 생각, 기대, 열망이 긍정적 생명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며, 일치적인 사람은 자기, 타인, 상황을 수용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 주인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Banmen, 2004a). Rogers의 일치성 구인이 더 일찍 알려지고, 심리치료 문헌에서 폭넓게 인용되어 왔지만, Satir는 일치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중요성을 보다 확장시켰다. Rogers는 초기에 일치성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을 중시하였다(Rogers, 1957). 하지만 이후에 자신의 글에서, 내담자에 대해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자의 경험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일치성의 중요한 역할을 제안하였다(Watson, 1984). 왜냐하면 진정성(일치성)이 없으면 공감은 참견이나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Lockhart, 1984). 초기 Rogers(1957)가 제시한 일치성의 개념의 중요한 요소인 개방성은, Satir가 이야기 하는 내면과 외부의 일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 Satir는 초기 이론에서 일치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언어반응과 더 세밀하고 은밀한 정보를 보내는 비언어 반응이 일치될 때 의사소통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박성희, 2001). 이후 일치성은 인간에 대한 성장모델로 정교화 되면서 Satir 모델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Davis et al., 1996; Losechen, 1998; Satir et al., 2000; Lee, 2001).

Satir의 일치성 개념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확장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50년대로서, 일치성은 감정에 대한 자각, 감정에 대한 인정, 감정에 대한 수용과 반사적이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일치성은 언어나 비언어적으로 전달될 때, ‘솔직하게(straight)’ 의사소통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960년대로, 일치성은 높은 자존감에 해당하는 전체적이고, 내적 집중, 자기 수

용의 단계이며, 이로써 보다 성숙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1980년대로, 영성과 우주에너지 영역의 세 번째 수준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인간과 자연적 존재의 성장을 창조하고, 지지하고, 촉진하는 ‘우주적 생명력(universal life force)’에 대한 연결 및 자각과 관련된다(Lee, 2001). 일치성은 주어진 순간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수준과 모든 영역에서의 생명에너지의 조화로운 흐름으로 드러나는 자각되고 수용적이고 개방된 상태이다.

Satir는 일치성을 정교화하여 대인간차원, 심리내적차원, 영성차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Satir et al., 1991). 대인간차원은 빙산의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으로, 인간의 행동과 대처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인간차원은 심리 내적 경험의 수준들이 밖으로 드러난 수준이다. 내적 경험을 어떻게 경험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적 경험의 가장 깊은 수준이 자신(self)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 일치적인 대처방식과 비일치적인 대처방식으로 나타난다.

심리내적차원은 감정(기쁨, 흥분, 분노, 상처, 두려움, 슬픔 등), 감정에 대한 감정(감정에 대한 판단), 지각(신념, 사고가치, 주관적 현실), 기대(자신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기대, 타인의 내에 대한 기대), 열망(보편적 소망: 사랑, 수용, 소속감, 창조성, 연결됨, 안정과 자유에 대한 열망,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싶은 열망)이 이에 속한다. 심리내적차원의 일치성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며,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관계하는 과정 동안 지속되며, 내적 집중과 자기 수용의 단계이며, 성숙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준이다.

영성차원은 자기(self)를 포함한 우주의 생명

에너지, 역동적 에너지, 에센스 또는 내적 원동력으로서 Satir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일치적인 경험에서, 내적 자기(self)에 닿아야 자신의 생명력과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다른 내적 부분들이 통합되었을 때, 건강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로써 조화롭음과 내적-집중을 가질 수 있게 된다(Wilber, 2000). Satir가 말하는 영성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며 일치적인 삶의 필수적인 요인이다. 보편적 영성이란,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되고 공유되며 폭이 넓고 깊은 세계이다(유동식, 1990; Banmen, 2008). 이런 맥락에서 특정 종교를 내세우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 의해 영성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보편화와 탈종교화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Marler & Hadaway, 2002, 권수영, 2006). 영성은 제도권 종교 내에 머물기도 하고, 초월하기도 하며,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선을 허물기도 하며, 종교 간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연하고 무정형적인 성격을 지닌다(길희성, 2007). 이상에서 살펴본 일치성의 세 차원에 속하는 경험의 각 부분들은 상호의존적이며, 순차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Banmen, 2005).

일치성과 관련하여 처음 개발된 도구는 Bonnie Lee(2002a)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정립은 실패하였다. Lee(2002a)는 일치성을 “인간의 세 가지 영역(심리내적, 대인간, 우주적-영성)에서의 자각, 개방, 연결된 상태”로 정의하고, 총 75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일치성척도를 개발하였다. 참가자는 Satir 강연에 참가한 29명과 메일로 설문지를 회수한 57명의 총 86명이었다. 척도 개발 과정에서 방법론적 문제와 더불어, Satir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요인분석에

실패하였고, 전체 또는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주성분요인 분석에 따른 요인부하량만 제시되었다. 전체 상관 0.3 이상인 4요인, 38문항을 제시하였다. 심리내적-대인간차원 12문항, 영성차원 10문항, 창의성 차원 3문항, 의사소통 차원 3문항이었다. 창의성 차원의 문항은 통계결과에 의해 새로 명명된 요인이 포함되었고, 대인간차원에 포함시켰던 의사소통 관련 문항들이 따로 묶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문항 수에 비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표집 인원과, 하위차원이 이론을 설명하기 부적절하게 묶이는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정립은 실패하였다. 또한 Lee(2002b)는 영성차원을 종교의 한 영역으로 보고, 특정 한 종교를 배경으로 이론적 틀을 세웠는데, 이는 Satir가 주장하는 영성의 개념과 다르다. Satir의 영성은 모든 종교를 아우르며, 종교를 넘어서거나 종교를 벗어나기도 하는 초월적인 개념이 많이 포함된다 (Banmen, 2008).

이후 Vivienne Ng(2004, 2008)가 일치적 경험의 내적 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11명의 치료자들이 일치성과 관련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에서 11명의 모든 참가자 중, 7명

은 기독교, 3명은 천주교, 1명은 불교인이었다. 7명의 기독교인은 유사한 영성적 경험을 하였으나, 3명의 천주교인은 같은 방법으로 영성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았다. 한명을 제외한 모두가 신 또는 신성한 것과 관계를 하며 자신들보다 더 큰 존재의 현존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적연구 결과 드러난 여섯 개의 주요 테마를 Satir의 일치성 세 수준과 대비하면 표 1과 같다. 이외에도 상담에서 일치적인 유용성의 본질로, 내담자와 신뢰로우며 안전한 관계의 촉진, 치료 시 상담자 자신에 대한 책임, 삶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목표의 확립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이상의 9개의 주제 외에 일치성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자기-돌봄과 영성적 실행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Satir가 제안하는 ‘일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Satir 성장모델에 관심을 가지거나, 일치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최근 상담 및 심리치료의 동향인 가족치료와 영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맥락에서, Satir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개

표 1. Satir의 일치성 세 수준과 Vivienne Ng의 연구결과

일치성 수준	면접 결과
수준 1: 심리내적	주제 1: 자기-자각 주제 2: 자기-수용과 자기-인정 주제 5: 삶에 대한 긍정적 조망과 인식
수준 2: 대인간	주제 6: 건강한 경계선과 대인관계의 친밀감
수준 3: 우주적-영성	주제 3: 내적 자기와의 연결 주제 4: 영성적 연결

인의 성장과 관련된 연구의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방 법

연구대상

일치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총 5회이다. 먼저 Lee(2002a)의 일치성척도 타당화를 위해 300명이 참여하였다. 예비 문항 구성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Pilot 연구는 대학생과 성인 189명을, 탐색적 요인분석에 33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659명의 질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자료에서 고졸미만 학력을 제거한 후 265명의 새로운 사례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개발한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에 153명, 교차타당도 확인을 위해 상담자 263명이 포함되었다.

문항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일치성 척도를 개발하기 전에 Lee(2002a)의 일치성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타당화를 시도하여, Lee(2002a)의 척도가 선행연구처럼 표집의 문제였는지, 문항의 문제(대처방식이 드러나지 않는 문항 기술)인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75문항을 번역 및 역 번역(2006년 6월-7월)하였고, 이후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게 검토 받고, 다시 원어민에게

문항 수정을 받았다. 다시 국어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문항을 수정한 후, 성인 3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수거하였다(2006년 11월-12월). 연구결과, Lee(2002a)의 척도는 Satir 성장모델을 검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도구임이 드러났다.

문헌연구(2007년 1월-6월)를 통해 Lee(2002a)의 75문항과 Ng(2004)의 면접 결과 나온 39문항, Satir의 의사소통 유형 척도에서 14문항, Satir의 일치성 관련 문헌에서 33문항, 총 161문항을 발췌하였다. 대학원 석사과정 4명과 박사과정 1명의 도움을 얻어 회의와 논의를 거쳐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제기된 10문항이 삭제되고, 70문항이 선정되었다. Satir 전문가 과정을 마치거나 진행 중인 상담전공 박사수료 4인에게 각 차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하였다. 이후 문항에 따른 차원 분류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문항들에 대해, Satir 한국지부 대표이며 가족치료 전문가의 감수를 받은 후, 대학생 40명에게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을 선별하도록 하였으며, 어렵다고 선정된 문항을 Satir 전문가 과정을 마친 4인에게 자문을 받아 영성이나 자아(self)와 관련된 6개의 문항이 1차 수정되었다. 최종 문항을 학부에서 국어를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상담전공 박사수료자에게 문항을 점점 받은 후, 다시 Satir 가족치료 전문가의 문항 적절성에 대한 최종 감수를 받은 후 총 60개로 구성된 예비설문지 문항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60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응답에 따라 1점(매우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채점되었다. 다시 Pilot 연구를 통해 8문항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11개의 문항을 2차 수정하여, 본 검사에 사용할 최종 52문항을 선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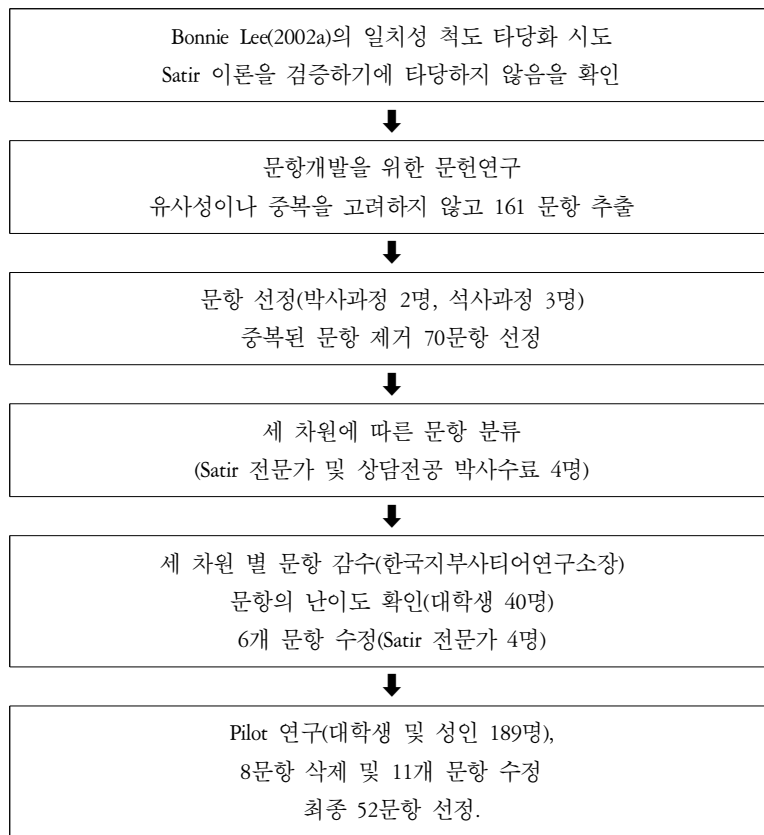


그림 1. 문항 개발 진행 단계

문항개발 시 Lee(2002a)가 제안한 바대로 대처방식과 관련된 내용이나 단어가 보다 더 명확하게 대처방식을 나타내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Banmen(2001, 2004a)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열망을 심리내적차원에, 영성은 자기(self) 초월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과정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측정 도구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정혜정 · 조은경(2007)이 개발한 총 38문항의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단

절 5문항, 타인과의 융합 7문항, 정서적 반응 9문항, 자기입장 8문항, 정서적 융합 9문항의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입장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머지 요인들은 점수가 낮을수록 자기분화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개발 당시의 각 하위척도의 Chronbach $\alpha = .69 \sim .84$ 이며, 전체 내적일치도는 $\alpha = .89$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 $\alpha = .78 \sim .86$ 이며, 전체 내적일치도는 $\alpha = .90$ 이었다.

한국형 영성 척도

이경열 등(2003)이 개발한 총 3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6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척도는 모두 5문항씩, 초월성, 삶의 의미/목적, 자비심, 내적자원, 자각, 연결성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Chronbach $\alpha=.72\sim.83$ 이며, 전체 내적일치도는 $\alpha=.93$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82\sim.90$ 이었고, 전체 내적일치도는 $\alpha=.94$ 이었다.

결 과

일치성척도의 요인분석 및 문항분석

예비연구를 거쳐 수정된 52문항으로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대인간측면, 심리내적측면, 영성측면의 하위 세 요인으로 구성된 최종 30문항이 선정되었다. 총 설명량은 약 40%였다. 각 요인이 설명해 주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는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의 요인은 5개였다. 요인수를 5로 하여 각 차원별 문항들을 살펴보면 심리내적차원과 대인간차원이 둘로 나뉘고, 요인수를 4로 하였을 때 대인간차원이 자기주장성과 대처방식으로 둘로 나뉘어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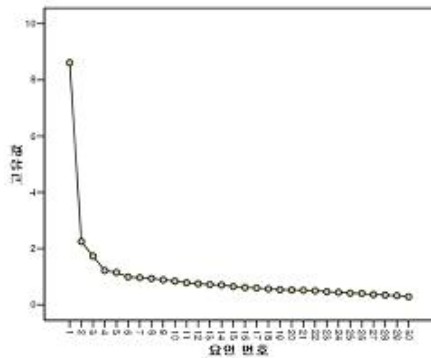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일치성 검사의 스크리 도표

다. 요인수를 3요인으로 하였을 때, 각 측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그림 2의 스크리도표(scree plot)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요인수와 일치하는 3번째 지점에서 꺾임을 보였다. 이는 Satir 성장모델의 하위 요인 수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에 요인수를 3으로 지정하였다. 양쪽에 비슷한 수치(double leading)는 제거하지 않고, 요인부하량이 더 많은 곳의 요인으로 정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개발된 일치성 척도의 전체 Chronbach α 는 .88이며,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간측면(.73), 심리내적측면(.83), 영성측면(.85) 모두에서 본 검사가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표 3은 재검사 신뢰도도 모두 약간 높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여, 전체적으로 일치성 척도의 높은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일치성의 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간차원 및 심리내적차원의 상관관계($r=.40$)와 영성차원 및 대인간차원의 상관관계($r=.22$)는 상호간에 적절한 관련성을 맺고 있고, 심리내적차원과 영성차원은 다소 높은 상관($r=.62$)을 보였다.

타당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문항과 요인이 Satir 성장 모델이 지향하는 이론 모델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산방법은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표 2. 일치성 척도의 요인계수 행렬(varimax 회전)

	문항번호 및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 1. 영성차원				
51	내 생명의 근원은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와 만난다.	.793	.037	.051
50	나의 본질은 우주(하느님, 부처님, 참나, 생명에너지 등)와 연결되어 있다.	.781	-.143	.024
25	나도 위대한 자연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628	.341	.091
49	나는 온전함(전인성)을 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614	.423	.037
34	태어남과 죽음은 끝이 아니고, 변화의 과정이다.	.590	.199	.026
33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신비로운 차원이 있다.	.577	.348	.016
23	나의 자아(self)는 더 깊고 높은 것을 추구한다.	.556	.443	.093
41	우리 주위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있다.	.552	.213	.013
46	나는 인간이 이처럼 잘 만들어진 것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다.	.526	.258	.090
13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며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501	.248	.126
요인 2. 심리내적차원				
45	나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중심 잡는 방법을 안다.	.120	.635	.117
47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마음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명히 안다.	.162	.635	.011
40	나는 과거의 기대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다.	.109	.626	.240
22	나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왜 그런지 생각해 본다.	.147	.621	-.161
36	나는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내 자신의 분별력을 믿는다.	.235	.606	.258
48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인다.	.245	.592	.104
14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	.244	.525	.273
31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돌보는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	.282	.521	.198
17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269	.462	.185
35	분노, 두려움, 슬픔 등의 감정을 나의 일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364	.434	.097
요인 3. 대인간차원				
38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042	.025	.671
28	나는 상처 받을까봐 두려움을 표현하기 어렵다.	.000	-.067	.655
11	나는 긴장감이 느껴지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회피한다.	.057	.369	.595
1	나는 섭섭한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126	.161	.584
10	내 말이나 표정이 나의 감정과 달리 표현될 때가 많다.	.164	-.050	.519
29	나는 외롭고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128	.104	.475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만족스럽게 갈등을 해결한다.	.028	.262	.420
12	상대방이나 나의 감정을 무시할 때가 많다.	.169	.121	.420
6	어떤 일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090	.274	.416
4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없다.	.092	.013	.405
	고유치	7.570	2.786	1.694
	설명변량(%)	25.233	9.287	5.646
	누적변량(%)	25.233	34.520	40.167

표 3. 각 하위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와 신뢰도(n=322)

하위요인	일치성 요인			평균	표준편차	Chronbach α	재검사 신뢰도
	대인간차원	심리내적차원	영성차원				
대인간차원	1.00			3.27	.55	.73	.75
심리내적차원	.40**	1.00		3.71	.56	.83	.85
영성차원	.22**	.62**	1.00	3.63	.67	.85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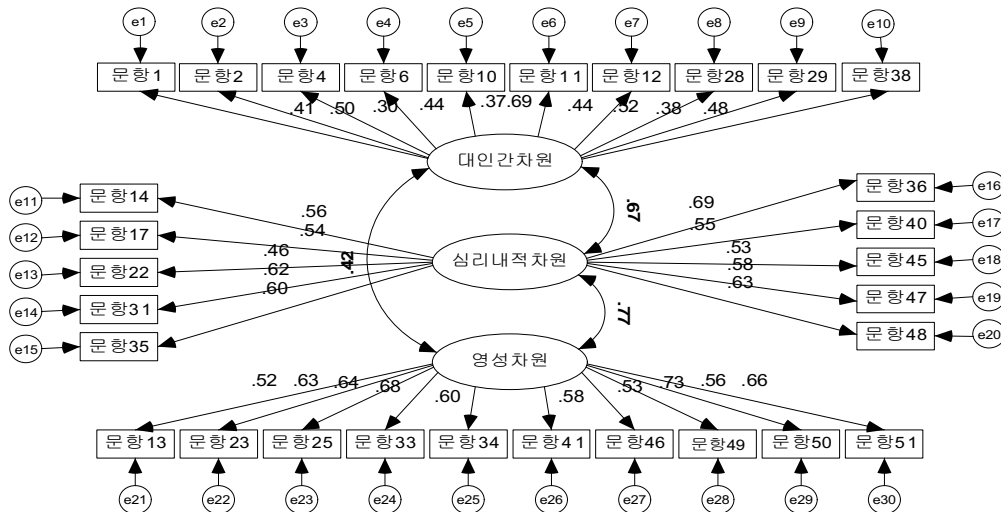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4는 일치성 척도의 하위 3요인의 30문항 전체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좋은 적합도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chi^2/df=3.11$ 은 5.0 이하로 적절하게 나타났고, 표본의 영향을 덜 받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들인 TLI(.835)와 CFI(.847)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 적합도 지수보다 추정방법에서 덜 민감하며 간명성을 고려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AGFI는 .85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좋은 적합도(.867)를 보이고 있다(우중필, 2008). 또한 표집의 영향을 덜 받으며 간명성을 고려하면서 신뢰구간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권장되고 있는 RMSEA(홍세희, 2007)도 .057로 좋은 적합도에 가까운 지수를 보였다. 표집의 영향을 받는다는 χ^2 의 문제점을 보완한 RMSEA는 신뢰도 구간이 넓지 않게(.053-.060) 나타났다. 이는 추정된 RMSEA 값이 정확함을 제시한다.

외적타당도와 관련된 공인타당도, 교차타당도를 실시하였다. 먼저 공인타당도를 위해 일치성과 한국형 자기분화척도, 한국형 영성척도를 사용하여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자아분화의 한 개의 하위변인(정서적 융합)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p < .01$

표 4. 일치성 척도의 요인구조 모형 적합도 지수(n=659)

모형	χ^2	df	χ^2/df	AGFI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3요인 모형	1251.966**	402	3.11	.867	.835	.847	.057(.053-.06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척도 가운데 일치성의 3 요인 모두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분화 척도는 일치성의 대인간측면과 심리내적측면 간의 상관을 보기 위해, 한국형 영성척도는 영성차원과 상관을 보기 위해 선택되었다. 표 5에서 이경열(2003)의 영성척도 하위요인은 본 연구의 심리내적차원 및 영성차원과 유사한 상관을 보이며, 초월성과 영성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자각과 내적자원은 심리내적차원과 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일치성 하위요인과 자기분화 하위요인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융합과 영성간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을 제시했다. 한국형 자기분화척도와 일치성척도의 상관관계에서, 자아분화 척도에서 대인간차원을 나타낸다고 제시한 정서적 단절 및 타인과 융합은 보통의 상관(.36~.43)을 보인다. 자아분화 척도에서 심리내적차원을 나타낸다고 제시한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은 보통의 상관(.27~.39)은 보통 이하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표 6은 정혜정 등(2007)이 대인간차원으로 분류한 타인과의 융합은 본 연구의 심리내적차원과 보다 높은 상관을, 심

표 5. 일치성과 영성의 상관관계

	하위요인	영성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자원	자각	연결성
일치성	대인간차원	.20**	.36**	.19**	.42**	.35**	.39**
	심리내적차원	.33**	.60**	.38**	.68**	.65**	.57**
	영성차원	.65**	.61**	.39**	.59**	.52**	.55**

표 6. 일치성과 자기분화의 상관

	하위요인	자기분화				
		정서적 단절 (대인)	타인과 융합 (대인)	정서적 반응 (심리)	자기입장 (심리)	정서적 융합 (대인+심리)
일치성	대인간차원	.36**	.43**	.54**	.44**	.33**
	심리내적차원	.37**	.56**	.39**	.27**	.16**
	영성차원	.23**	.32**	.22**	.21**	.07

표 7. 일치성 척도의 교차타당도

집단별		χ^2	df	χ^2/df	AGFI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성별	남자집단(n=212)	79.790*	51	1.565	.908	.923	.941	.052(.028-.073)
	여자집단(n=273)	77.513	51	1.520	.934	.936	.951	.044(.022-.063)
학업별	대졸미만(n=277)	74.307	51	1.457	.934	.934	.949	.043(.017-.060)
	대졸이상(n=382)	102.520**	51	1.877	.935	.933	.948	.051(037-.066)
교차집단	상 담 자(n=263)	79.960*	51	1.568	.934	.947	.959	.043(.023-.061)

리내적 요인으로 분류한 자기입장은 대인간차원과 보다 높은 상관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일치성 척도가 표집에 종속된 모형인지, 아니면 다른 표집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모형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 검사에 포함되었던 전체 659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었다. 첫째, 성별로 남자집단(n=212)과 여자집단(n= 273) 집단으로 나누었다. 둘째로, 학업별로 대졸미만(n=277)과 대졸이상(n=382) 집단으로 나누었고, 학업별 분류는 상담자 집단과 적합도 비교를 위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대상이 아니었던 상담자(n=263) 집단을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 참여시켰다. 다섯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표 8과 같다.

χ^2 검증과 표준카이 자승치(χ^2/df)를 통한 적합도 검증 결과 모든 집단에서 5.0 이하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GFI, CFI, TLI, RMSEA를 이용한 적합도 검증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집단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업별로는 대졸미만이 RMSEA에서 약간 더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교차집단인 상담자 집단은 여자 집단과 대졸미만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일치성 척도를 상담자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최근 상담 및 심리치료의 동향은 가족치료와 영성에 대한 관심의 확대이다. 가족치료와 영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다루는 Satir 성장모델은 종교에 상관없이 상담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Satir 성장모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본 연구는 Satir 성장모델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Satir 성장모델의 핵심인 일치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Satir의 이론적 근거를 검증하기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일치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항개발과 관련하여, 비일치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과 관련된 대처방식들은 대인간차원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문항 선정과 관련하여, 39번(‘나는 걸으려는 강한 척 하지만 사소한 것도 상처를 잘 받는다’)에 대한 빈도 분석결과,

70%의 응답자가 ‘매우 아니다’, ‘다소 아니다’에 응답하였다. 자존감이 높고 자기중심이 잡힌 사람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작은 것에도 상처를 잘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특성은 일반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라 이해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존감 관련 연구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자존감 수준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곤란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통해, Satir 성장모델에서 제시하는 세 하위차원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문항간 신뢰도 검증에서 대인간측면의 .20이하의 문항들이 40%정도 제거되면서, 문항간 상관을 미치는 적은 문항수로 인해, 전체 신뢰도 계수가 줄어들었다. 학업에서 고졸미만을 제거 후 확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고문정(2008)의 박사 논문과 달리, 요인을 4로 하였을 경우 ‘자기 주장성’을 드러내는 문항들과 대처방식으로 분류되었고, 요인을 3으로 한 결과, 같은 차원으로 묶였다. 이로 인해 대인간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들은 이전의 모두 역채점이 필요한 문항들이었으나, 역채점이 필요하지 않은 문항들과 섞이게 되었다(예, ‘어떤 일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주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남·여 모두에게서 드러나는 국내의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고졸미만의 사례를 제거 후 자기주장성 문항들이 제거되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학업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풍토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평균은 심리내적측면이 가장 높고($M=3.72$), 다음으로 영성측면($M=3.62$)이고 대인간측면이

가장 낮은 평균($M=3.25$)을 보였다. 신뢰도는 심리내적차원($\alpha=.85$)과 영성측면($\alpha=.85$)은 같았고, 대인간측면이 가장 낮았다($\alpha=.72$). 이는 대인간차원 문항이 심리내적 문항보다 좀 더 응답이 쉽지 않았음에서 추론해 볼 수 있고, 또한 대인간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제시를 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으로 응답을 하기보다 더 솔직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아영 등(2003)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대인간차원에 포함된 암묵적 부정문항(‘나는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을 표현하기 어렵다’ 등)들이 긍정문항과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상관을 보였다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관련변인과 관계연구를 통한 외적 타당화와 관련하여, 척도 가운데 일치성의 3요인 모두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분화 척도는 일치성의 대인간차원과 심리내적차원 간의 상관을 보기 위해 선택되었다. 두 척도에 대한 요인 구성은 본 연구의 일치성의 하위요인들을 토대로 분명히 드러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정혜정 등(2007)이 대인간차원으로 분류한 ‘타인과의 융합’은 본 연구의 심리내적차원과 보다 높은 상관을, 심리내적 요인으로 분류한 ‘자기입장’은 대인간차원과 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경열 등(2003)의 영성척도 하위요인은 본 연구의 심리내적차원 및 영성차원과 유사한 상관을 보이며, 초월성과 영성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자각과 내적자원은 심리내적차원과 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영성척도의 경우, 자비심 하위요인을 제외하고는 본 척도의 영성차원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한국형 영성 척도의 초월성은 본 연구의 영

성차원에, 그 밖의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자각은 본 척도의 심리내적차원에 해당하며, 연결성 요인은 본 연구의 대인관계 하위요인과 상관이 높았다. 이는 영성척도의 연결성의 문항이 대인간의 연결에 가깝다면, 일치성에서의 연결성은 ‘생명 에너지’와의 연결과 ‘우주’와의 연결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한국형 영성척도의 하위변인인 자비심은 본 연구 척도에서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Satir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개인의 일치성이 가정의 일치성으로, 이것이 사회의 일치성으로 확대되어 세계평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심리내적인 측면을 탐색할 때 타인의 내적 탐색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조망을 넓히는 방식으로 자비심을 암묵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한국형 영성척도의 하위요인별로 보았을 때, 개발 당시의 Chronbach α 계수가 모두 상향되었다. 본 연구의 일치성 척도 개발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증가를 보인 바와 같이 앞의 일치성 척도와 유사한 문항에 반응하고 나서, 좀 더 편하게 문항에 응답하면서 신뢰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특히 어떤 하위요인보다, 일치성 척도는 한국형 영성 척도와 심리내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 의미가 유사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일치성 척도의 경우, 6개의 하위요인 중, 자비심과 자각을 제외하고는 Satir 성장모델의 우주적·영성적 차원과 열망차원(연결,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본 연구에서 20대 보다 30대에서 일치성 척도의 적합도가 더 높은 것처럼, 한국형 영성 척도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학생을 감안했을 때,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

올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쌓이면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tir 성장모델에 근거한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국내문화를 반영하는 척도개발을 하였다. 이는 국외의 연구를 타당화 할 경우, 드러나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처음으로 방법론적으로 의미 있는 일치성 척도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이후 일치성과 관련한 활발한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처음으로 Lee (2004)가 개방형 질문과 척도를 사용하여 일치성 척도의 개발을 시도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까지 마친 일치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Lee (2002a)의 연구에서 심리내적차원과 대인간차원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점을 염두에 두고, 내적-외적 차원을 분명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자의 제안 점을 받아들이는 바이기도 하다.

셋째, 최근에 개발된 ‘한국형 자기분화척도’(정혜정 외, 2007)와 ‘한국형 영성척도’(이경열 외, 2003)와 공인타당도 검증을 통해, 기존척도의 구인타당도 및 각 척도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차타당도에서 상담자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적합도 지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집단은 대졸미만이거나 여자집단과 비슷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이는 본 척도를 상담자 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

끝으로 일치성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치

성에 대한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인 선행연구가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된 본 연구의 일치성 척도는 Satir 성장모델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성장이나 적응 등의 연구에 다양한 촉진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수영 (2006).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종교와 심리학의 만남. 서울: 책세상.
- 길희성 (2007). 서강인문논집. Vol. 21, 271-300.
- 김계현 (2002).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학지사
- 김미영 (1988). Satir 가족치료모델에 따른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01). Satir 가족 조각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의 효과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김세영 (2003). 명시적 부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심리척도의 요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16(1), 39-52.
- 김영애, 김정택, 심혜숙, 정석환, 제석봉 공역 (2004). 가족치료: 핵심개념과 실제적용. 시그마프레스
- 김희수 (2003). 성숙한 결혼생활을 위한 교회내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 보웬 이론과 Satir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2001). 동화로 열어가는 상담이야기: 수용과 공감의 지혜. 학지사.
- 박은초 (2005). Satir의 성장 의사소통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08). Amos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구조방정식 모델. mySTATISTICS.net.
- 유동식 (1990). 한국인의 영성과 종교. 계간 사상: 1990 여름호, 5(1), 129-162.
- 윤종옥 (2001). Satir의 가족치료학적 관점에서 본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 (2003). 한국인의 영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711-726.
- 이영란 (2007). Satir 성장모델을 적용한 집단상담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심리내적체계와 성장변화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병수 (2000). Satir의 의사소통적 가족치료와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와의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2003). Satir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9-46.
- 최영실 (2005). 융의 심리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Satir 의사소통 유형 이론의 재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Banmen, J. (2001). Satir model workshop, Unpublished manuscript.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Banmen, J. (2002). The Satir model: Yesterday and toda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1), 7-22.
- Banmen, J. (2004a). Satir model workshop,

- Unpublished manuscript.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Banmen, J. (2005). Satir model workshop, Unpublished manuscript.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Banmen, J. (2006). *The Satir Journal: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Vol. 1, 2-3
- Banmen, J. (2008). 가족치료와 영성. 강의 특강 내용.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Beaudry, Gilles (2002). The family reconstruction process and its evolution to date: Virginia Satir's Transformational Proces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1), 79-92.
- Benthem, S. (2006). *Couple Congruence and Spirituality: Expanding Satir's Model Through Seven Couple Narratives*. Master's thesis, Victoria University. Victoria BC.
- Benthem, S. (2008). Couple Congruence and Spirituality in the Satir Model: Part II. *The Satir Journal*, Vol. 2, No. 1, 37-54.
- Corey, G. (2001).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A: Wadsworth / Thomson Learning.
- Davis, B., McLendon, J., Freeman, M., Hil, NI, Loberg, J., Lester, T., & Huber, C. (1996). Satir and congruence: A response. In Barbara Jo Brothers (Ed.). *Couples and the Tao of congruence*. NY: The Haworth Press.
- Lee, Bonnie K. (2001).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the Satir model: Philosophical, ritual and empirical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ttawa, Ontario.
- Lee, Bonnie K. (2002a). Congruence in Satir's model: Its spiritual and religious significanc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1), 57-78.
- Lee, Bonnie K. (2002b). Development of a congruence scale based on the Satir model.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1), 217-239.
- Loesch, S. (1998). *Systemic training in the skills of Virginia Satir*.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Lockhart, W. H. (1984). Rogers'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revisited.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2(2), 43-49.
- Lum, W, Smith, J., & Ferris, J. (2002). Youth suicide intervention using the Satir Model.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1), 139-160.
- Marler P. & Hadaway, C. K. (2002) Being religious or being spiritual in America, a zero-sum proposition?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 289-300
- McDonald, J. (2008). "Insights": An Aboriginal Experience of Transformation. *The Satir Journal: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Vol. 2, No. 1, 108-115.
- Ng Siang Kiat, V. (2008)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of psychotherapists' congruence in Singapore. *Psychotherapy Research*, 18(1), 58-76.
- Ng Siang Kiat, V. (2004). *The Role of Congruence in Psycho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 Pei, Y. (2008). From Caterpillar to Butterfly: Action Research Study of a Satir-Based Women's Program in Taiwan. *The Satir Journal*, Vol. 2, No. 1, 55-107.
- Rogers, C.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95-103
- Satir, V., Banmen, J., Gerber, J. & Gomori, M.

- (2000). Satir 모델: 가족 치료의 지평을 넘어서[*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한국버지니아사티어연구회 역).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원전은 1991에 출판).
- Sayles, Carl (2002). Transformational Change-Based on the model of Virginia Satir. *Contemporary Family 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24(1), 79-92.
- Smith, Stephen (2002). Transformations in Therapeutic practic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1), 79-92.
- Tam, E. P. C. (2006). Satir Model of Family Therapy and Spiritual Direction. *Pastoral Psychology*. Vol. 54, No.3, 275-287.
- Taylor, Gloria (2002). Family Reconstructio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1), 129-138.
- Watson, N. (1984). The empirical status of Rogers' hypothesis of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effective psychotherapy. In R. F. Levant, & J. M. Shlein(Eds.), *Client centered therapy and the Person centered approach: New direction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7-24.
- Wilber, K. (2000). *Integral Psychology*. Boston: Shambhala.

원 고 접 수 일 : 2009. 3. 27
수정원고접수일 : 2009. 5. 11
게 재 결 정 일 : 2009. 8. 19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Congruence Scale based on Satir's Growth Model

Mun-Jeong Ko

Bong-Whan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congruence scale* for adults. This study gathers data in three steps. The first step conduc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of 189 adults for pilot research. The second step involved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inal congruence scale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of 733 adults on the *congruence scale*. The last step confirmed cross-validity using a sample of 263 counselors. The final 30 items were ident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a maximum likelihood estimate. Based on the results, the best model for the congruence construct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interpersonal dimension, intrapsychic dimension and spiritual dimension.), and the *congruenc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Key words : Satir, congruence, interpersonal dimension, intrapsychic dimension, spiritual dimension